용주사 주지후보에 성법 스님

7월 17일, 유력후보 성월 스님 사퇴로 무투표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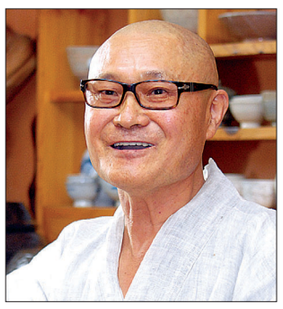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후보에 前만의사 주지 성법 스님이 선출됐다. 유력후보인 현 주지 성월 스님이 산중총회 전날 사퇴함에 따라 성법 스님이 주지후보로 무투표 당선된 것.

용주사는 7월 17일 경내 관음전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신임 주지후보로 성법 스님을 선출했다. 임기는 8월 28일부터다.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195명 중 8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법 스님의 당선 확정 직후 당선증을 전달했다.

성법 스님은 "최선을 다해서 교구가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노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성법 스님은 정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용주사서 정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876년 법주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염불사와 만의사 주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유력후보였던 성월 스님은 16일 후보 사퇴의사를 밝힌 뒤 '조계종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했다. 이 글에서 성월 스님은 "용주사 주지에 당선된 이후 저의 개인 신상을 두고 여러 억측과 비난이 난무했다. 사실이 아님을



주지후보로 당선된 성법 스님.
사진제공=제주불교신문

수차례에 걸쳐 설명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만 부풀렸다"며 "의혹이 제기될 당시 사실 여부를 떠나 종단과 교구본사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결심을 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교구본사주지가 사퇴하면 앞으로 종단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스스로 의혹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주변 만류가 많았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번 산중총회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자격심사를 통해 저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더 이상 종단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제 모든 시비를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천일용맹정진, 종단혁신 가능할까

조계종 교권자주위원회 전체회의서 혁신안 검토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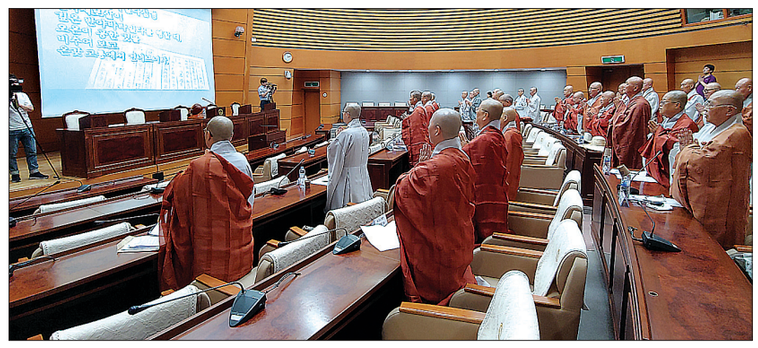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 종단 대표자들을 향한 범계의혹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서 종단 안팎에서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혹규명을 위해 구성된 교권자주위원회가 불교적 방식의 종단혁신안을 검토, 총무원에 제안했다.

조계종 교권자주 및 수호위원회(위원장 밀운)는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인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종단혁신안'을 심의·의결했다. 종단혁신안은 장기적 혁신안과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혁신안으로 구분된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종단 차원에서 언론에 노출하지 않았으며, 회의서는 기조와 취지를 중심으로 설명한 뒤 의결해 총무원에 제안했다.

제안자인 혁신위원장 도법 스님에 따르면 총괄적인 혁신안의 이름은 '천일용맹정진'이다. 이 안에서 장·단기적 대안을 모색하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위한 순례 등이 장기적 움직임으로 제시됐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설정 스님 의혹 규명에 최선 △승가공동체의 참회와 근본대책 마련 △종단혁신 원탁회의 구성 △종단 내부문제 해결에 화쟁방식으로 전환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법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대로 종단을 혁신하려면 적어도 천일의 시간은 염두에 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해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서 천일순례 같은 동적인 성찰과 반성을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당면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제안일 뿐 총무원이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이다. 과거의 아쉬운 모습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천일용맹정진' 총무원에 제안
과거 쇄신위원회 결과물 중심
장·단기적 대안 등 담았지만
시행 여부에 부정적 시각 있어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교권자주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전체회의서 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종단혁신안'이 의결됐다.

교권자주위원회가 총무원에 제안한 혁신안은 과거 종단쇄신위원회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 때문에 시행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종단쇄신위원회 당시 혁신안은 자료집으로만 제작됐을 뿐 현장에서 시행되진 않았다. 실제 이날 회의서도 도법 스님이 설명한 혁신안에 대한 위원들 간의 논의는 없었다. 단 한 명도 질문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의결됐다.

교권자주위원회는 이외에 지난달 이뤄진 종령 개정에 따른 추가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 명예원로 명선 스님, 원로의원 일면 스님을 위촉했으며, 현 집행부에 비판적 입장을 표한 중진급 인사들을 위원으로 섭외하도록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지환 스님은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의 모임'에서 활동 중인 현진 스님을 추천했으나 당사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회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교권자주위원회는 그간 이뤄진 각 소위원회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설정 스님 친자의혹을 받는 전○경 씨 모친인 김○정 씨가 방한 예정이어서 면담을 하기로 했으며, 7월 25일 불국사·은해사·직지사를 방문해 PD수첩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구본사주지協 "종단 안정 시급"

전주 수현사서 57차 회의… 빠른 결과도출 주문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빠른 시일 내 종단안팎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종단 안정을 되찾을 것을 총무원에 요구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7월 19일 전주 혁신도시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 회의실서 제57차 회의를 개최했다. 교구본사주지 17명이 참석한 회의서는 종단현안 보고와 관련해 총무부가 교권자주 및 수호위원회 활동을 보고했다. 이 자리서 총무부는 MBC PD수첩 방송에 항의하는 현수막 등을 전국 사찰 200여 곳에 게시하고, 종단사찰토지에 설치된 MBC송신탑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우려를 표한 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교권자주위원회가 일정을 앞당겨 빨리 결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총무부는 빠른 시일 내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을 밝혔다.

이어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최근 제주 예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불교계가 활동하는 데 협의회가 관심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허운 스님은 "예멘 난민 돕기 제주불교대책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아직 초기단계"라며 "최소 체류기간 동안 거주지 임대료를 비롯해 각종 생필품과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 총무원 사회부 팀장은 "난민을 인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난민 숙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불교계가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중앙신도회가 행복바라미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선골프대회와 군종특별교구의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도 이어졌다. 또한 58차 회의는 9월 28일 은해사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종무원장, 집행부 의혹 해명 촉구

대전서 종단발전회의 개최
7월 18일, 종단 정상화 기원

공금 유용 등 중앙종회 감사에
종단 집행부 조속한 해결 요구



태고종 전국종무원장협의회가 7월 18일 대전서 모여 종단에 제기된 의혹 해명에 총무원 집행부가 나설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 종단 안팎으로 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종무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행부에 제기된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태고종 전국종무원장협의회(회장 법성, 경남종무원장)는 7월 18일 대전 대림호텔 2층 회의실서 '5차 전국종무원장협의회 종단발전회의'를 열고, 중앙종회 특별감사위원회가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는 전국 지방종무원장들과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수석부의장 시각 스님, 종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서 특별감사위원장 법담 스님은 4가지 사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태고종 현 집행부에 제기된 대표적 의혹은 2013년 폭력사태 당시 비대위 소속이었던 우혜공 스님에게 최근 지급된 2억 원의 출처다. 아울러 △천중사 관련 신모 씨 및 청년회장에게 지급된 3억1000만원 △울산 용암사 건 물매입 및 입출금 확인 △영평사 관련 공문서 위조와 삼보정재 유실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서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특별감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중앙종회에 보고하고,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서는 이뿐만 아니라 멸빈자들의 소송 및 화해권고에 대한 총무원의 무대응 건, 승가위계 및 종도탄압의 건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어 전국종무원장협의회는 앞서 제기된 의혹과 총무원 차원의 대응 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종회가 종헌종법에 근거해 투명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조동제 전북지사장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8월 16일 오리엔테이션 실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7월 27일까지며, 희망자는 민추본 정기 후원회원 가입선청서와 입학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심사를 거쳐 개별 공지하며, 8월 6일까지 수강료를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수강료는 1인 70만원(순례비용 포함).

교육과정은 8월 16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된다. 실내강좌는 8월 23일부터 9월 13일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백두산 및 북중접경지역 순례는 9월 15~18일 예정돼 있다.

교육과정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그 실현가능성과 과제(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통일의 시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이해(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02)720-0531

윤호섭 기자

